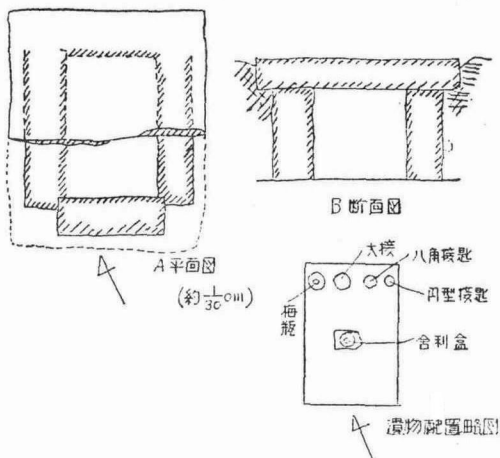


圖1. 遺物出土石室見取圖

圖1 遺物出土石室見取圖



아무것도 없었다. 靑銅盒은 그 뒤 五月 十二日 本人이 現地 調査時 舍利盒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磁器의 配列狀況은 左側石室隅에 靑磁黑白象嵌竹鳥花紋

梅瓶一個(高三〇·五cm)가 있고 右側으로 鳥牧丹蓮紋大接과 蘭菊雲紋大接이 포개져서 있었으며 (口徑一九·六cm 二

(〇·六cm) 그 右側에 菊花紋八角接趾(口徑一一·七cm) 三點이 역시 포개 놓였고 끝에 菊花紋圓型接趾(口徑一〇·八cm) 二點이 포개져 있었다. 그런데 이 石室이 元來 어떠한 外形狀態에서 埋藏되어 있었는가 하는 問題인데 二次에 걸친 調査結果 이것을 解明하는 他遺蹟을 發見하였다. 그것은 이 石室에서 一〇〇m 쯤 溪谷과 並行해서 山腹을 따라 들어간 곳으로 亦是 앞石室의 立地와 비슷한 完만한 地帶가 있고 여기에 一段으로 된 八角基壇石이 있다. 遺存狀態는 基壇石上部의 石物은 紛失되어 없고 八角基壇石은 一枚로 되어 있으며 下段基石은 中央에서 갈라 떨어져 있었으며 基壇石直下는 앞의 石室과 같은 構造樣式을 가진 小石室이 있었다.(圖2)

또 이 基壇石에서 다시 南쪽으로 山腹을 따라 가면 東쪽으로 溪谷이 굽어지는 곳에 부도골(浮屠谷)이 있다. 이곳에 第一의 石室等과 같은 構造의 石室이 一個 側壁을 平扁한 自然石으로 만든 것이 一個以上이 있으며 周邊에 八角基壇石及 屋蓋石 등이 散在해 있었다. 洞里人들의 證言에 依하면 이 石室 위에 元來 浮屠가 있었는 데 約四〇年前 日人이

三基分을 當時 三〇圓을 주고 移轉해 갔다 한다. 勿論 行方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證言과 現存遺物 位置 等으로 보아 石室위에 浮屠가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事實은 從來 一般的으로 舍利裝置는 塔身部에 安置한다는 概念에 對한 異例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第二의 石室과 浮屠谷의 石室內部에 對해 付記할 것은 第二의 石室內에서는 頂骨과 鐵釘이 나왔을 뿐이며 勿論 內部는 이미 손을 낸 痕蹟을 볼 수 있었으며 浮屠谷의 石室은 모두 盜掘된 듯하며 內部를 整理해 보아 도 아무 것도 發見되지 않았으며 모두 흙이 半程度 쌓여 있었다. 또 浮屠谷의 石室周邊은 한 邊을 五m 程度로 네모지게 돌담을 쌓은 흔적이 있으며 外見上 四個所를 찾아 볼 수 있었다. 如何間 浮屠構造樣式上 重要한 것이라 보아 以上 大體 紹介하는 바이다. (여기에 소속된 사진 二枚는 下卷 一五六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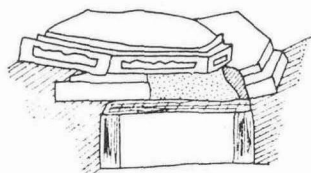


圖2. 第二石室(基壇下)埋藏狀況

漢沙里遺蹟의 一磨石器

崔淑卿

지난 四月 二十七日 廣州郡 東部面 漢沙里 櫛文土器遺蹟에서 寫眞I과 같은 재미 있는 磨製石器를 採集하였다.

漢沙里遺蹟은 一九六〇年 여름 發見되어 報告되었던 바 ① 그 뒤 年年 雨期마다 漢江의 浸削으로 遺物包含層이 무너지며 豊富한 土器片을 들어 냈던 것이다. 그러나 學術的인 調査란 金元龍博士가 넣은 「트렌치」程度로 本格的 調査를 거치지 못한 채 遺蹟이 거의 무너져 버리고 들어난 遺物들은 여러손에 흩어지게 되어 마치 乙丑年 洪水에 露出되었던 岩寺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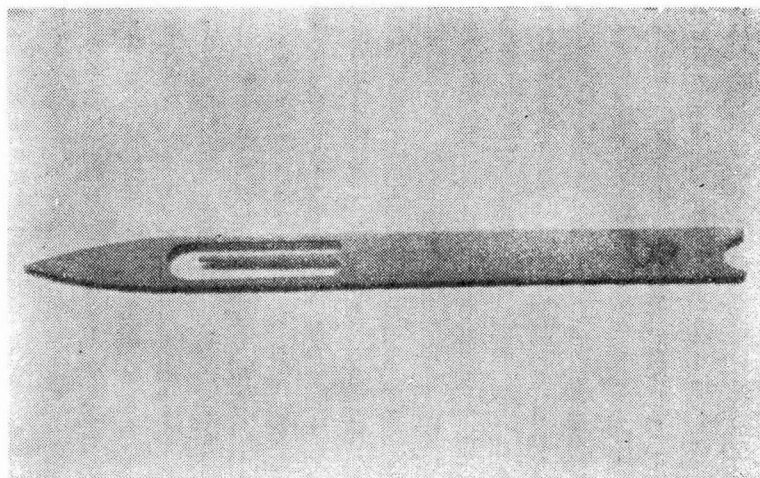
遺蹟과 같은 運命을 당하게 된 것은 遺憾스러운 노릇이다.

여기 紹介하려는 이 磨石器 역시 무너진 堆積層 아래 遺物散布地에서 採集되었다. 全長 七·六cm, 幅 二·六cm, 가운데 部分의 두께 〇·五cm의 玢岩製의 잘 잘아 다듬은 長方形石器로 寫眞에 보다시피 네모진 한쪽 끝 가까이 直徑 〇·四cm가량의 구멍을 내고 다른 끝은 양쪽 두 귀를 三角形으로 잘라내어 뾰족하게 하고 있다. 구멍은 半月形石刀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앞뒤에서 솟아있는 것을 둘러싸고 있으며 平行하는 兩邊 앞뒤 모서리에 톱니같은 刻目を 새기고 있다. 石器가장자리에는 가운데 部分보다 多少 얇게 잘아 내고 있으나 전혀 날을 세우지 않았고 〇·二—〇·三cm 두께로 뾰족하게 돌아가고 있다. 다만 三角形을 이룬 原點部分만 앞뒤에서 잘라내어 銳利하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形態의 道具는 일찍이 ② 黃海道弓山櫛文土器遺蹟에서 骨製品이 報告되고 있는 外는 별로 알려진 바 없는 것이다. (但弓山것은 身部의 刻目이 나 있지 않은) 弓山遺蹟의 報告者는 이것을 「삿바늘」이라 이름하여 삿자리나 바구니를 修繕할 때 使用되던 것이라고 보고 있는 모양이나 이번 漢沙里에서 採集한 같은 形態의 石器를 살핀 結果 좀 困難한 解釋이 아닐까 여겨진다. 앞이 뾰족하니 날이 서고 뒤에 구멍이 나 있는 點으로 보아 바늘의 一種임이 틀림없으나 앞의 뾰족한 頂點을 除外하고는 가장자리가 뾰족하게 돌아가지고 있어 무엇을 꿰고 꼬매기에는 不適當한 것이다. 더구나 몸에 새겨진 刻目은 이 바늘이 그러한 用途에 쓰여지지 못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點에 비추어 이 바늘은 뾰족한 앞 部分이 길을 잡으면 뒤 部分은 뾰족하고 刻目이 저있어도 별 摩擦없이 使用되는 作業에 쓰였을 것인데 그런 作業이라면 그물 또는 作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물뜨는 일이란 실을 一定한 間隔으로 비끄러 매어 코를 만들고 거기에 연이어 코를 만들어 비껴 매여가지만 하면 되는 作業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現代의 漁網用 바늘을 調査한 結果 이 石器가 틀림없이 그물 바늘이라는 結論을 얻게 되었다. 寫眞Ⅱ와 Ⅲ(右側)은 오늘날 使用되고 있는 그물바늘이다. 寫眞Ⅱ에 보다시피 逆刺가 달린 柳葉形으로 몸안을 파내어 突起를 세우고 Ⅰ 그 突起와 逆刺 사이에 실을 세로로 감아서 바늘

과 실패를 결합한 形態로 使用하고 있다(寫眞Ⅲ參照)。——寫眞Ⅲ의 것은 Ⅱ의 것에若干 改良을 加하여 「레쓰」바늘을 앞에 부쳤을 뿐 根本的으로 다른 點은 없다——漢沙里遺蹟의 그물바늘에 있어서는 그 네모진 身部가 그 실패 役割을 하였을 것이며 오늘날의 그물바늘과는 달리 가로로 실을 감아 使用했을 것이다. 現代 그물 바늘이 실을 감도록 만들어진 것은 실의 같은 方向을 作業의 方向과 一致시켜 감겨진 실에 依한 摩擦을 減少시키려는데 있는 것으로 오랜 歲月동안의 經驗에 依支하여 이루어진 改良이라 보겠다. 櫛文土器文化人들이 그물뜨는 作業에 있어 作業의 方向과 直角으로 감겨진 실이 걸치게 거리고 때로는 바늘몸에 감겨진 실이 몽땅 뒤로 밀려 빠져나가는 괴로움을 겪었던 모양으로 바늘몸에 새겨진 刻目이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弓山 그물바늘에 나 있지 않던 刻目이 漢沙里 것에 나타나고 있는 事實은 上述한 不便을 改良해 보려는 努力의 한 過程을 우리에게 示唆하는 것으로 興味있는 일이다. 그물바늘 뒤의 구멍은 실의 한 끝을 매어 두기 위한 것이며 또 그물



寫眞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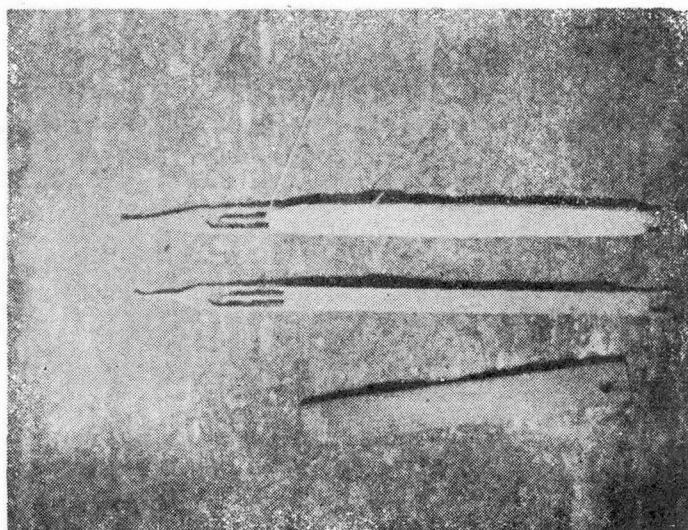
을 다른 뒤에 버려
(網)를 피는데도使
用되었던 것으로 본
다。寫眞Ⅲ左端에 보
이 드시 오늘날도 그
물빛—그물눈을 一
定하게 하기 위하여
쓰는 나무쪽—한 끝
에 구멍을 내어 버려
Ⅱ 피는데 利用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重要な原因은 이들 道具가 나무나 骨角같은 썩기 쉬운 材料로 만들어
졌던 까닭일 것이며 櫛文土器遺蹟에 돌을 材料로 한 精巧한 道具가 드
물고 거치른 打製의 것이 大部分을 占하는 事實은 이것을 뒷바침하는 것
으로 보고 싶다。即 그들은 나무나 骨角을 利用하여 大部分의 精巧해야
할 여러 道具를 만들어 썼고 그들의 精力과 技巧을 거기에 傾注했던 것
이라 보겠다。骨角器를 精巧히 製作한다고 하여 반드시 石器의 製作이
精巧하지만 않다는 事實은 유렵 舊石器時代文化樣相으로 미루어 잘 알
수 있는 事實이다。石器를 打整하여 成形하고 打擊으로 이루어진 自然

우리는 櫛文土器
文化의 重要性格의
하나로 漁撈生活을
말함은 하나의 常識
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實際로 그것
을 뒷바침할 漁撈關
係道具의 發見은 極
히 드문 것이다。그

的인 날을 그대로 利
用하고 있었다 하여
이것으로 櫛文土器
文化人的 美的感覺
이 愚鈍했다든가 磨
製石器의 製作技術
이 發達되지 못했었
다는 것을 그 理由
로 들 수는 없는 것
이다。이러한 傾向
은 打整한 그대로 用
途에 따른 제구실을
다할 수 있었기에 굳
이 거기에 磨研을 加
하지 않고 지내던 그
들의 石器製作의 習
慣의 所致라 하겠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서는 나무나 骨角을
다루던 솜씨를 돌에도 驅使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번 發見된 石製의 그
물바늘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적지 않을 것에 그들의 精巧한 솜씨를 담아 稀貴한 漁撈關係遺物을 남
겨준 일은 漢沙里遺蹟人에게 感謝할 일이라 하겠다。



寫眞 Ⅲ

註
① 金元龍·廣州漢沙里櫛文土器遺蹟(歷史學報一四輯一九六一年)
② 弓山原始遺蹟發掘報告書